



#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동명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조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영상 제작자의 미디어 제작활동과 생애전환점 분석을 통해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수자-되기 실천의 함의들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사상가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의 소수자 이론을 검토한 후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사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영상제작자와 인권동호회 영상제작자들을 연구 참여자들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를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주체적인 미디어 제작 활동들을 생애사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장애인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핵심어:** 장애인, 영상제작, 소수자, 미디어 비오그라피

---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jskang1@cau.ac.kr

\*\*\* simalo0422@gmail.com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장애인에 대한 많은 인식개선과 국가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 속 장애인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나 인류의 평등(平等)과 공정(公正)을 내세우는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은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마저도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벽인 것이 현실이다. 2018년 현재, 최근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으로 비장애인은 7~10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주, 2018, 3, 9). 특히 휠체어 전용 리프트 설치 구간이 현저히 부족하며, 직원 호출 시간도 약 7분이 소요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활동 대부분에 제약이 따르고 그 관심마저 미미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소수자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할 때는 1992년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민족과 언어 중심의 소수자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이 선언문에 명시된 개념이 오늘날의 소수자 개념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선언에서는 소수자를 존재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장려하는 일이 국가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정근식, 2013). 그리고 2006년부터 인권권리장전 아래에 장애인권리장전을 세워 본격적으로 전 지구적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평등과 공평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장전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규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에 있다(U.N., 2006).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통상적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뿐 그들을 하나의 시민이나 친구 또는 가족으로 보는 비장애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때 소수자를 대하는 다수자들의 태도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고용 부문에서도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고용과 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예티켓과 장애인을 대하는 예절교육 등을 강조하는 위주로만 서술되어 있어(김용탁·김정연·고인철, 2016), 법 자체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영상 제작자의 미디어 제작활동과 생애전환점 분석을 통해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수자-되기 실천의 함의들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사상가인 질 들뢰

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의 소수자 이론을 검토한 후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그리고 ‘세속화’의 사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소수자론은 인간을 끊임없는 욕망을 생성하는 ‘욕망 기계’로 상정하여 억압된 기체들에 저항하고 주체성 형성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감벤이 제시한 고대 로마 용어인 ‘호모 사케르’ 사유를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제된 존재’들을 분석하고, 억압의 기체들로부터 ‘세속화 실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영상제작자와 인권동호회 영상제작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를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는 소수자의 생애사 속에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주체적인 미디어 제작 활동들을 생애사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장애인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욕망의 배치와 ‘소수자-되기’실천

들뢰즈와 과타리는 주저들인 〈안티 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에서 욕망의 정의와 배치 방식에 대해 제시한다. 우선, 욕망의 정의는 신체 개념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언급된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기관 없는 신체(Corp sans organes)”의 개념을 내세우며 장기-몸(intestin-corps)의 개념을 재정의 하여 일체의 조직적이고 유기체적인 프레임을 제거해버린다. 이는 조직화되지 않고 변용 가능한 요소를 지닌 신체를 의미한다. 즉 신체의 장기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완전한 구성요소가 아닌 ‘미리 결정되어있지 않음’(indéterminé)을 의미한다(윤지선, 2016). 이러한 관점은 합리주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신체 관점과 다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Discours de la méthode)〉(1637/1993)에서 인간의 신체를 ‘조직화된 기관들(organes organisés)’인 ‘몸-자동기계(body-mecanic)’에 비유해 신체를 질서정연한 유기체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체는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각각의 장기들의 조화 속에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기계인 것이다.

이 경우 신체들이 어떠한 운동성을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들뢰즈와 과타리가 강

조하듯이, 신체들은 서로 결합되고 변이하는 실천의 장이기 때문이다. 즉 욕망은 데카르트의 ‘몸-자동기계’나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처럼 가족적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원을 지닌 실천인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72/1997). 따라서 욕망이란 결핍의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되고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관점에서 인간은 ‘욕망기계’로 규정되며 만남을 통해 다양한 욕망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강진숙, 2015). 욕망은 “인간 고유의 습성이나 내포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배치(agencement)란 욕망의 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72/1997, 20쪽; 강진숙, 2015). 욕망은 결코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정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욕망이란 배치의 질료(質料)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질료는 특정한 힘이 가해질 때 형상(形相)을 유발하는 재료와 같은 의미이다. 욕망은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속성으로 정서의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情動)의 운동성을 지닌 것이다(강진숙, 2015). 정동은 스피노자의 생성 철학에서 연유하며, 욕망과 차이를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서가 변이해 그 능력이 재고된다. 들뢰즈와 과타리도 이를 통해 소수자 되기를 실천한다고 주장하며, 이때 서로의 관계 맺음을 매개하는 소통의 기제가 곧 정동의 장치인 것이다(강진숙, 2014).

그러면, 욕망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들뢰즈와 과타리는 욕망이 실현되는 방식을 배치의 선분화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서 선분이란 욕망의 신체적 흐름들을 보여 주는 기계들의 접속이 만드는 집합체를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즉 선분은 관성 작용처럼 자연 과학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수직 또는 횡단운동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욕망의 흐름과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선분화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경직된 선, 유연한 선, 탈주선 등이 그것이다(〈표 1〉 참조).

표 1. 들뢰즈와 과타리의 배치의 선분화 방식

	경직된 선 (line of rigid)	유연한 선 (line of supple)	탈주선 (line of flight)
장치 유형	• 국가장치	• 권력의 미시 물리적 구조	• 권력의 선분들에 균열, 새로운 변이 창조
장치의 특징	• 거시적 영역 • 권력의 가시화·집중화 • 권력 장치는 거대한 집중화된 장치로 현실화됨	• 탈중심화 된 미시권력 • 장치들이 분자적 흐름들 전반으로 확산, 선분화하는 구조	• 탈주선의 흐름을 따름, 권력 장치들을 무력화함
장치의 지대	• 능력의 지대	• 식별불가능성의 지대	• 권력의 무능지대

출처: 강진숙 (2015). 정동의 장치와 주체화 연구방법 - 미디어 비오그래피. 《한국언론학보》, 11권 4호, 4-37.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표 1〉에 기술된 바를 살펴보면, ‘경직된 선’은 분자적인 흐름들을 위계질서가 갖추어진 이차원적인 분할을 하는 배치 방식이다. 이러한 선분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는 데서 나타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즉, 몰(mole)적인 개념으로 의례적인 사회가 규범화한 인종, 성별, 계급 등의 질서를 일정한 틀 속에 사회적으로 구속시켜 선로를 이탈하는 행위 또는 이탈 등의 행위를 할 시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일련의 방식들이 ‘경직된 선’을 어겨 행해지는 처벌에 속한다.

‘유연한 선’은 미시적인 개념이다. 국가나 집단의 영역 보다는 분자단위 영역에서 적용되는 선분화이다. 즉, ‘유연한 선’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공식 및 규칙으로 선분화 할 수 없는 대중(mass)이나 공공기관의 의례적 관료주의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명 ‘경직된 선’과는 구성하는 주체와 적용되는 성질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유연한 선은 특정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직된 선으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연한 선은 분명 관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권위적인 관계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규칙적이지 않고 공식적이지 못한 성질로 인해 집단을 완벽하게 분해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뒤엉키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마지막으로 ‘탈주선’은 새로운 변이의 흐름들을 생성해 내는 배치의 선분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수자 되기 실천 과정에서 주로 발견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사실 이러한 선분화 개념은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과 비담론적 이론을 비롯한 권력 장치에 관련된 사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문제는 욕망의 개념을 파악할 때마다 푸코가 논의한 권력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들뢰즈는 자신이 온전히 알고자 한 ‘권력 이전에 생산된 욕망의 장치’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찾아 나섰다. 푸코의 권력의 배치를 들뢰즈와 파타리는 영토화,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구성은 목적인 덩어리들을 해체시키고 욕망을 미시적 권력 장치와 ‘소수자-되기’실천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들뢰즈는 욕망생성의 형태와 기계적인 탐구를 넘어선 실천의 개념을 사유하고자 했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논의에 입각하여 주체의 의식 또는 인식의 차원에서 정서의 변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양태(개체)로서의 신체와 신체들의 만남 속 발현하는 질서와 접속 또는 ‘-되기’리는 틀로 사유의 범위를 확장시킨다(오창호, 2014). 이러한 욕망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끊임없는 운동을 생산하며, 기관 없는 신체는 수많은 욕망들을 “연결접속하고 접합접속하고 연속시킨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307쪽)고 주장한다. ‘-되기’는 단순한 주관적인 느낌을 뒤흔들고 전복시켜 일종의 ‘-저항할 수 없는’ 형태이다. 이는 지층 아래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되기'의 과정을 지향하게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비아, 2007). 여기서 탈영토화는 기존의 규격화되고 고정된 제도나 규칙을 탈피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영토화는 이미 사회에서 작동되는 지배적 권력에 순응하는 움직임을 뜻한다(강진숙·박지혜, 2015; 이경화, 2013). 그리고 '-되기'는 다수적인 것으로부터 탈영토화하여 끊임없이 생성되는 차이의 변주와 함께 탈주하는 운동성을 지칭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여기서 '-되기'는 '여성-되기', '동물-되기', '식물-되기' 등 '소수자-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되기'라는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되기는 결코 관계를 상호간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소수자-되기'가 존재하기에 다수자-되기도 존재하는 양면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성이란 소수적이며, 모든 생성은 '소수자-되기'로 창발(emergence)되기 때문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550쪽). 여기서 다수성이란 물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도, 어떠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배 상태를 전제로 한 의미이다. 현대의 정치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 사이에서만 정치의 형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 투표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은 다양체들의 수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렇지 못한 대상들이 소수파가 된다. 하지만 동성애자-흑인-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과 같은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배질서나 권력들로부터 배제되고 통제받는 자들을 소수파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앞서 제시된 소수자들은 다수자의 행동과 의지에 동화되지 않고 '예속'되어 내면화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닌, 차이를 생성하고 특이성을 지닌 존재의 주체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유사성을 찾는 일도, 모방도 아니며, 동일화를 뜻하지도 않는다. 즉 소수자 되기는 "가짜 유사성들을 몰아내고" 차이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446쪽). 이러한 개념은 상상으로만 실행하는 일종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실재적인 것이다. 실재적인 것은 '-되기' 그 자체이면서도 욕망 생성의 블록을 형성하는 '생성하는 자(celui qui devient)'가 되는 일종의 이행 과정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452쪽). 즉, 동일하지 않고 공통되지 않는 각각이 독립된 소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자-되기'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고 '소수자-되기'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미는 다수자만이 '소수자-되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소수자-되기'는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 의해 생산된 기준과 척도의 열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탈영토화 된 삶의 배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팽배한 질서에 얽매인 소수자들에게도 '소수자-되기'는 필요하다. '-되기'는 다양체들이 끊임없이 '나' 이외의 타자 속으로 변형되어 들어가는 형태이며, 서로서로가 상대방 속으로 이행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수자

사회의 소수자 또한 '소수자-되기'를 실천해야 하는 개체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되기의 실천을 요구하는 다양체들이다. 다양체는 뚜렷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통일이거나 이해의 중심에 의해 규정되지도 않는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473쪽). 그렇기 때문에 '-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은 차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은 그 수적인 열세에 의해 지칭되는 소수자가 아니라, 절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표준적 다수(남성-백인-어른-비장애인-이성애자)에 반대되는 소수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아우르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소수자들을 결핍의 객체로 지정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보호주의에 상응하는 통제와 억압을 시행하고 있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이는 사회적 순환으로부터 배제되고 그 진행 방향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되어 억압받고 무시 받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소수자는 절대적으로 다수자에 동조되고 예측되는 대상이 아니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소수자를 차이의 생성을 발현하고 특이성을 보유한 주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은 분리를 통해 부분적 대상들의 배치에 따라 욕망을 생산하는 생산 기계이다. 소수자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수자와 소수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이다(윤수중, 2008). 다수자의 사회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다수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미디어에 주입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영토에 건설적 욕망을 발현할 수 있다. 다수자의 이념 아래에서 생산되는 배려와 보호라는 단순한 미명을 받아들이기 보단, 자신들이 직접 미디어를 개진하고 이야기를 생산해 주체성을 지닌 욕망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주체적 욕망 형성에 관해 더욱 심도 높은 탐구를 진행해야 할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

## 2) 소수자로서의 장애인

다수자 중심의 세계에서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배제의 상황들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종종 장애인들은 예외적 존재가 되거나 보호와 긴장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이러한 예외적 존재를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고 부르며, 이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질과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세속화'실천을 제기했다.

먼저 호모 사케르 개념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서 '성스러운'이라는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결함(holy)'의 뜻과 다르다. 당시의 뜻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인민에 의해 고발당한 자'를 '성스럽다(sacer)'고 한다. 이는 희생의 제물로 허용되지 않으며,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 받지 않는 존재를 뜻한다(Agamben, 1995/2008). 아감벤은 이러한 호모 사케르의 이론적 근거들을 신학과 로마

법제사에서 출발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역사철학 테제와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 그리고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개념을 확장시켜 그 의미를 재정의 하였다(김윤상, 2013). 바로 그것이 생명체를 지칭하는 두 가지 입장, 즉 조에(zōē)와 비오스(bios)이다. 조에가 “모든 생명체들에 공통적인 삶의 단순한 상태”라면, 비오스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삶의 형식이나 방식”을 가리킨다. 이처럼 아감벤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관계를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통합하여 ‘포함(Inklusion)’과 ‘배제(Exklusion)’의 원리로 분석하고 있다(Agamben, 1995/2008). 조에와 비오스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적 포함과 집단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수자들이 주도하는 ‘포함’의 집단적, 동질적 행위들은 곧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호모 사케르’는 보이지 않는 지배 권력과 장치를 통해 발현된다. 푸코에 의하면 장치는 “생명체들의 담론을 포획하는 몸짓, 행동, 의견, 지도, 포획, 규정, 차단, 제어 등을 보장하는 능력을 지녔다.”(Agamben, 2006/2010, 33쪽). 아감벤은 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푸코의 장치론을 발전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시적이지 않았던 장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그 존재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즉 한쪽에 생명체들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포획하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체들과 장치들의 관계성 속에서 탄생한 결과가 바로 ‘주체’이다. 인간은 한 사회 내의 미디어나 언어 등의 장치들을 통해 ‘~남’, ‘~녀’ 등 특정한 주체로 구성된다. 예컨대, 온라인 공간의 ‘김치녀’, ‘초식남’, ‘스시녀’ 등의 온라인 호명이나 ‘청춘의 아이콘’, ‘섹스 심벌’ 등 스타에 대한 호명도 미디어 장치를 통해 타의적으로 주체화된 사례이다. 이러한 호명은 소위 ‘페르소나(persona)’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이나 정체성을 가리키기도 한다(Agamben, 2009/2014). 오늘날의 생체인식 기계들은 표준 척도에 의해 개인의 생체정보들을 수집하는 장치로서 의료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사적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도구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감벤의 장치에는 언어와 미디어가 포함되며, 이 장치들을 통해 특별히 호명된 위의 존재들은 정치적 주권이 상실되고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생성된 생체인식, 즉 벌거벗은 생명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지배 권력에 노출되어 제어당하고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에 통제당하기 쉽고 제어 가능한 생명체와 장치의 관계를 푸코는 ‘예속화’라고 부른다(Foucault, 2003/2014). 푸코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생명체가 포획되고 그 속에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획일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예속된 장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아감벤은 장치에 예속되는 생명체들을 주시하며, 주체를 형성하는 ‘장치’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한다. 특정 권력 장치의 예속화는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생명체 고유의 힘을



통제하고 자율적인 행동과 판단들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장애인이 연기하는 TV나 영화 속 장애인의 모습은 미디어 장치에 의해 구성된 주체들로서 ‘불쌍한 장애인’이나 ‘슈퍼 장애인’들로 양분된다. 여기서 문제는 비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로서 성별, 직업, 국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장애인들은 집단화되고 예외적 존재인 ‘호모 사케르’로 묶는다는 점이다. 아감벤이 주장하듯이, 한 사회의 국민은 주권자 아니면 ‘호모 사케르’로 분리되며, 이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Agamben, 1995/2008, 92쪽). 주권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함’의 합법화 기제는 호모 사케르와 같은 소수자들의 ‘배제’를 전제로 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포함과 배제는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의 원리이다. 이처럼 권력의 목적에 따라 획일화된 주체를 형성하는 예측은 ‘경직된 선분’의 배치와 유사성을 지닌다. 예측된 장치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집중화된 권력이 관철되도록 하나의 경직된 방향성과 표준 규범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수자 중심의 장치와 기제에서 벗어나 소수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의 원리들을 복원할 수 있을까? 아감벤은 다수자 중심의 미디어 장치들을 ‘세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Agamben, 2006/2010). 즉 장치 속 권력의 힘 아래에 포획되고 배제, 분리되어 있는 것들(혹은 사람들)을 ‘공통’의 것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강진숙, 2015). 세속화의 의미를 검토해 보자. ‘봉헌하다(또는 신에게 바치다)’(sacrare)가 법의 영역에서 사물을 분리시키는 행위라면, ‘세속화하다’(profanare)는 “사물을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것”(Agamben, 2005/2010, 108쪽)을 의미한다. 결국, ‘세속적인 것은 과거 종교적인 무엇이 결부된 것을 인간의 사용과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어떠한 분리와 결속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을 뜻한다. 성역화 되는 사물이나 장소는 언제나 ‘공통의 것’, 즉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분리 배치된다. 여기서 환속화(secularizzazione)와 세속화(profanazione)는 구분된다. 환속화는 과거의 인간이 신성시 했던 천상의 존재를 지상으로 끌어내려 그대로 내버려둠을 의미한다. 다수자의 미디어는 주류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의 형식으로 ‘환속화’되어 있다. 환속화된 미디어는 소수자의 입장을 전달하지만 축소 혹은 배제하여 다수자의 권력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면, 미디어의 ‘세속화’는 모두가 공통의 것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고 ‘공통의 인간’ 미디어로 작용하게 만든다.

세속화의 실천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접촉’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신성한 것이란 신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창출되는 관념인데, 신에게 제물로 받쳐진 고기들을 먹는 접촉을 통해 ‘돌처럼 딱딱한 것’이 마법처럼 풀어내어 모두에게 되돌아가는 형태로 변이된다. 둘째는 ‘소홀함(negligenza)’이다. 종교처럼 인간과 신을 분리시켜 성스러운 힘을 유지시키는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한 존엄적인 대상 앞에서 산만하고 소홀한 태도를 취해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 재사용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놀이’이다. 대부분의 놀이는 성스러운 제의나 예언 풍습 등 일종의 전통적 의례들과 유래되었는데, 육체적 활동이나 보통의 사람들의 놀이를 통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을 떼어내고 신화를 전복시켜 인간이 자유로운 행동의지를 갖는 존재로 세속화 한다(Agamben, 2005/2010). 이처럼 권위와 권력 지향적인 장치들에 저항하고 공통의 것으로 돌리는 세속화 작업은 들뢰즈와 과타리가 사유한 탈주선과 유사하다. 세속화나 탈주선은 새로운 문제들을 형성하며 지배적인 사회통념과 제도적 장치들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실천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담론들은 대체로 개인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그 역할 속에서 시작된다(김지연, 2017). 장애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신체 개념보다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인식되고 형성된다. 즉 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다수자와 상대적인 신체 부조화를 경험하고 그 인지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수자인 비장애인들의 의식구조는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자신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부여하는데, 장애인에게서는 이와 반대되는 비가치화와 ‘일탈한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실체와 편견을 가지게 된다(고창환, 2009). 이는 인간의 신체를 기능(function)에만 치중해 가치를 판단한 것으로 들뢰즈와 과타리가 비판한 판단형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순응 - 부조화 - 저항 및 몰입 - 자기반성 - 통합적 자각’의 단계로 태도와 인식을 특정화 한다(이익섭·신은경, 2005). 스피노자가 언급하듯이, 나의 신체와 다른 신체가 적합한 만남을 이룰 때 더 높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며 기쁨의 정서를 촉발한다. 하지만, 신체가 ‘부적합한’ 다른 신체와 접촉할 경우 그 기쁨은 슬픔의 정서로 변이하게 된다(Spinoza, 1675/1990). 소수자의 신체는 필연적으로 다수자의 사회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소수자는 그 만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정서를 변이해간다.

다수자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주체적인 인격보다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197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치료를 위한 구분에 반대하고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운동이 시작되었다(Oliver & Barnes, 2012). 이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의 기준을 다수자가 정의하여 그 가치를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그에 부흥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다수자의 사회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장애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의 제한에서 오는 비동일성에 그 가치를 두어선 안 되고 장애인의 욕망이 적합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최애경·박승희, 2004). 다수자가 집단화 할 때 보편성이란 자신이 소속된 동질성

을 중시하지만, 그만큼 다른 구성원과의 차별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김지연, 2017). 장애인은 다수자의 신체적 주관에서는 비동질적이지만, 그러한 특수성 또한 장애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이며, 동시에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해낸다. 이는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conatus)의 발현과 그 충동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연히' 만나는 욕망의 발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는 존재로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 인권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수많은 호모 사케르가 양성되고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2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용산참사,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끊임없이 이슈화되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저항운동이 있어 왔지만, 이들의 이슈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적이 거의 없거나 잘못 보도되기도 한다. 이 사례들은 장애인과 산재 노동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이 시대의 호모 사케르로 재생산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자본과 정치권력이 다양한 미디어 장치들을 활용하여 그 상황을 환속화 하여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수자의 '배제'가 미디어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 속의 장애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언제나 후자의 위치였고, 배제된 존재로서 과소재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류 미디어인 TV프로그램에서조차 장애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KBS의 '인간극장', '사랑의 가족'이 전부이다. 그러나 미디어에 노출된 장애인의 이미지는 '연민'과 '결손', '슬픔'을 강요하는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드라마 속에서 천벌 받는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권력 속에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자의 사회 속에서 양성되는 배제의 현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매체가 비장애인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공간이 아닌 '공통의 인간'이 사용 가능한 세속화된 장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감벤의 사유를 다시금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 3)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과 특징

#### (1) 문제적 대상

장애인은 대부분 비장애인 또는 다수자의 시각적 코드에 맞추어, 다수자의 세계에서 별개의 존재, 문제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속 장애인은 주로 의류나 보험과 같은 광고 영상에 자주 노출된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항상 기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미디어가 규정하는 여러 사유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 현 시대의 미디어 영역 속 장애인 재현은 ‘타고난 결함’을 지닌 장애를 부각시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수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시킨다(박홍근, 2017). 이렇듯 사회가 드러내는 장애인의 이미지 특성은 다수자의 사회와 경제적 관계의 물질적 산물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장애인이 처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다(Oliver, 1990).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미디어 노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때는 1980년부터이다. 그리고 대체적인 연구들이 분석한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 이미지는 둔하고, 무력하며, 이기적이고, 무식한 존재로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Donaldson, 1981). 콜린 바네스(Barnes, 1992)는 장애인들이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을 총 10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2〉 참조).

**표 2. 미디어 속 장애인 스테레오타입**

1	불쌍한 사람	6	슈퍼 장애인
2	호기심이 많은 사람	7	주인공의 최악의 적
3	약한 사람	8	부담스러운 사람
4	폭력적인 사람	9	성욕이 결여된 사람
5	우스꽝스러운 사람	10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출처: Barnes, C. (1992). Media Guidelines. In: Pointon, A. and Davies, C. (eds.) (1997) *Interrogating Disability in the Media*. London: British Film industry, p.228-233을 재구성함.

이와 같이 미디어 속 장애인들의 이미지는 주로 동정 받아 마땅하거나 이야기의 전개에서 비장애인들을 당황시키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연민의 맥락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차원을 자극하는 요소로만 존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e Balcazar, 1988; Kellner & Hallahan, 1990). 이는 장애 자체를 작가나 제작자들이 관객으로부터 이야기를 몰입시키는 역할로 사용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인격과 욕망을 제거시키고 ‘장애’라는 요소를 장치로만 사용하는 행위이다(Shakespeare, 1999). 이외에도 권위적인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장애인이 출연하는 영화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총 영화 출품 대비 3%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후보작 중 44%가 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좀 더 활발해졌음이 나타났다(Safran, 1998).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2000년 이후부터다. 김미정(2001)은 192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출품된 장애인 관련 영화를 선별하여 영화 5편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구조를 살펴보았다. 김홍주(2004)는 한국영화 속 장애인의 유형을 역할, 용어,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빈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정선(2004)은 한국과 미국의 영화들을 분석하여 장애인 등장인물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고, 강주현과 임영호(2012)는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이미지를 스테

레오 타입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애인의 재현 사례는 넷플릭스(NETFLIX)의 <테어데블(Daredevil)>(2016) 드라마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은 아침에는 변호사였다가 밤이 되면 뉴욕을 지키는 자경단 일을 한다는 이야기이지만 그는 사실 시각 장애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 속 장애인 영웅들의 등장은 장애를 '신화'로 생산해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사례이다. 영웅화된 장애는 초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초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된다.

여러 해외연구와 국내연구들이 미디어 속의 장애인 재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한 주장은 사회적 편견과 왜곡이 미디어 속에 투영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계급과 인종 그리고 젠더 등에 따른 미디어 재현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에 따른 질적 심층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박홍근, 2017). 소수자에 대한 여러 인권 운동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미디어 속의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편견이 담긴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한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출현하는 장면 속에서는 비장애인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Nelson, 1994).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다수자의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 패싱(passing)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의 정체성과 진실된 그들의 삶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수자가 인지하는 편견적 사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스스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미디어 재현이 필요함을 견지해야 한다.

## (2) 긍정적 주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HBO)의 피터 딩클리지(티리온 라니스터 역)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수자 영화배우이다. 135cm의 신장을 가진 선천적 저신장을 갖고 있으나,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와 다양한 표정 연기는 그를 단신의 연기자라는 것을 망각하게끔 만든다. 특히 2018년에 개봉한 인피니티 워에서는 오히려 거인으로 등장하여 많은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sup>1)</sup> 피터 딩클리지의 등장은 항상 수동적인 요정이나 우스꽝스러운 난장이들로 표현되었던 저신장 장애인들의 영화 속 이미지를 전복시켰다.

영국 BBC의 경우 선천적으로 오른쪽 팔뚝과 손이 없는 루시 마틴(Lucy Martin)이 BBC뉴스 메인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다.<sup>2)</sup> 그녀는 2015년에 개최한 BBC 기상캐스터 공채

---

1) URL: <https://nerdist.com/peter-dinklage-avengers-infinity-war-character-explained/>

를 통해 당당히 입사했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메인 기상캐스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악의적인 불쾌감을 표출하거나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음에 기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를 통해 같은 주류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있는 발표자가 더 많이 채용 되고, 뉴스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에서는 여러 형태로 장애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호주 ABC방송은 〈You Can't Ask Tha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들을 여러 관점에서 보여 줌으로써, 모든 장애가 동일하고 그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다는 신화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세서미 스트리트 (Sesame Street)는 2017년 4월부터 자폐증을 가진 줄리아(Julia)를 데뷔시켰다. 줄리아는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돕기 위해 만든 캐릭터로서 다양한 어린이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미국 ABC 프로그램인 〈Dancing with the Stars〉에서는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춤에 대한 열정으로 큰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출연하였고, 오스트리아 FOX TV의 경연 프로그램인 〈The Voice Australia〉에 출연한 맥컬럼(McCallum) 또한 그의 목소리만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2011년에 진행된 〈Masterchef〉에서는 뇌성마비를 가진 존 휴즈(John Hughes)가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요리 경연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Katie Ellis, 2015, 7. 8).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드라마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영화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현된다. 예컨대, '사랑따윈 필요없어'(2006)나 '블라인드'(2011)처럼 장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남성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 대상으로 묘사되거나(박흥근, 2017), '도가니'(2011)와 같이 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일어난 사회적 이슈를 영화화한 내용이 한국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의 사례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해결사 역할을 하거나, 주요 역할로 소개되는 영화도 존재한다(김형태, 2010). 해외 미디어 속에서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차이와 관점에 대해 편견적 사고를 멈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Gray, 2009).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데 미디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양정혜·노수진, 2012). 장애인에 관련해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초기에는 각종 학술 세미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

---

2) disability HORIZONS NEWS URL: <http://disabilityhorizons.com/2018/01/speak-disabled-bbc-weather-presenter-lucy-martin/>

나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해 활발한 인권 및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한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 재현 관련 모니터링보고서 작업이 2007년에 멈춰 있다. 미디어에 비추어진 장애인 인권 개선 세미나도 2008년 이후 그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의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들이 병마와 싸워 영웅적 승리를 거뒀다는 시나리오는 비장애인들에게 교훈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만 사용되며, 더욱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장면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양정혜·노수진, 2012). 해외의 경우도 장애인 여성의 출산 과정, 그리고 육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과정을 미디어에 담아 비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의 삶이 평범한 삶과는 대치되고 그러한 인식 속에서 파생된 잘못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Metcalf, 2002).

장애인의 신체를 다수자의 논리에서 규정하고 규율하는 삶권력의 발현은 '일반적'이라는 가치관을 장애인에게 강요하고 훈육하며 그들을 타자화한다. 일상생활 속에 침잠해 있는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훈육질서, 즉 삶권력에 대항하는 삶정치적 저항으로서 장애인운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 탈시설화와 부양의무제를 철폐하고, '장애인등급제도 폐지'와 '이동권 투쟁운동' 등이 바로 예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또한 자기결정성과 주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자조주의와 탈의료화운동, 장애인 시민권운동 등 삶권력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의 자조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춘완, 2005).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정치와 주체성을 지향하는 실천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와 비장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활성화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이 연구는 장애인들의 영상제작활동과 소수자 실천 활동들을 살펴보고 대안적 시각들을 도출하고자 했다.

## 4.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 참여자는 주로 어떤 미디어 활동을 하였고, 미디어 속 장애인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문제 2.** 연구 참여자는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 어떻게 생애 전환점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연구문제 3.** 연구 참여자는 생애 전환점 이후 미디어 제작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현실의 문제점을 극

##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선정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애사 속에서 미디어의 이용 태도와 경험을 미시적·단계적으로 재구성해보는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는 1980년대 초 독일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학계에서 시작된 질적 연구 방법이다. 당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미디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상황이었으며, 이용자의 미디어생활과 이용에 있어서 비판적·성찰적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강진숙, 2016). 이러한 의견은 인간의 생애사 과정에서 미디어 이용행위에 초점을 두어 미시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시적 시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론으로 개진되었다.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에 대한 정의는 강조점에 따라 학자별로 다양하게 탐색된다. 첫째, 폴브레히트(Vollbrecht, 1993)는 미디어 비오그래피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어 "경험된 삶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미디어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과정 속에서 축적된 생애적 시간들에서 발생한 미디어 이용행위들을 구조화하여 분석하며 그 속에서의 의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예측된 패턴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 방식을 알아볼 수도 있다(강진숙, 2016). 둘째, 볼링(Wolling, 2002)이 제시한 미디어 비오그래피는 경험으로 구성된 시간들과 현재 진행되는 시간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의 구조라고 정의된다. 현재 관점에서 이용자가 미디어를 다루는 경험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분석하는 생애사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분석법은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어떠한 단절과 전환점을 중심으로 주요한 단서를 찾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독일 미학의 거두 크누트 히케티어(Hieckethier, 1982)는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를 정의한다. 각각의 수용자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유전적, 세대별 수용자의 경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미디어 비오그래피를 구성한다. 생애사적으로 이용자의 생애를 쫓아감으로써 미디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수용자에 대한 연구로 시선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수용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강진숙, 2016). 마지막으로, 안-우베 로게(Rogge, 1982)는 미디어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맥락에서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를 정의한다. 이 방법론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 속에 평생 동안 사람이 쌓는



경험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강진숙, 2016).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관찰자는 이용자의 경험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미디어와 연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미디어 이용행위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폴브레히트(Vollbrecht, 1993)는 오랫동안 사회적 과정 속에서 축적된 생애적 시간들에서 발생한 미디어 이용행위들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그 속에서의 의미들을 분석해보는 연구법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미디어 비오그라피는 개인의 삶과 시간의 흐름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생애사적 연구방법의 분석 틀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나 전환점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의 정체성, 미디어와 이용자의 상호 작용 및 정서의 변이(정동), 사회 속 미디어 이용행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계기나 생애 전환점을 통해 장애인 영상제작이라는 미디어 실천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 방법은 유용성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미디어비오그라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의 미디어 체험 및 변화 양상들을 생애 전환점 분석을 통해 해석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나타난 정서의 변이와 ‘소수자-되기’의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인 이상인 소규모 표집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하는 방법론이다(강진숙,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영상 제작자들의 삶을 전기적 영역으로 구성하여 분석해봄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복합적 욕망 행위를 탐구하고 미디어 시청 경험에서 발견한 주류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관찰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제작과 장애인 디큐멘터리제작 활동을 바탕으로 ‘소수자-되기’ 실천을 발견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미디어에 따라 생애사적 흐름을 근거한 느낌과 경험을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만델바움(Mandlbaum, 1973)의 생애사 연구 틀에 맞추어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만델바움의 생애사 연구는 삶의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삶의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재구성하여 미시적 추적을 진행하였으며, 생애 전환점을 찾아 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4명의 연구 참여자들, 즉 대구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소속된 장애인 영상 제작자와 은평구 인권동호회 영상 제작팀에 소속된 제작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조적인 영상 모임을 갖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및 디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이러한 영상

과 함께 초·중·고 인권교육영상으로 활용하거나 영화제에 출품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연령)	직업(역할)	소속기관	미디어 제작 활동 기간	장애유무 (장애 유형)
A	35세(남)	전환지원 1팀 팀장 (장애인인권개선교사)	대구시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1년	유 (지체장애인)
B	40세(남)	영화 배급(감독)	시네에그	8년	무
C	28세(여)	도서관 사서 (기획 및 촬영)	은평구 장애인복지센터	4년	유 (지적장애인)
D	23세(여)	제조업(촬영)	그레이프 랩	4년	유 (지적장애인)

본 연구의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문항을 토대로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 A와의 라포(rapport) 형성은 ‘장애여성연대 마실’의 김광이 대표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2018년 4월 29일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4월 31일에는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약 3시간동안 스마트폰 녹취와 동시에 동료 연구자의 도움으로 내용 기록을 진행하였다. 이후 추가 질문은 지속적인 휴대전화와 SNS문자(카카오톡)를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B와의 인터뷰는 2018년 8월 31에 진행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연구를 통해 첫 만남을 가졌고, 그 후 지속적인 연락과 연구자의 영상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촬영활동에 참여 관찰한 후 연구 참여자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같은 인권모임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 C와 D는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동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의 신뢰성 검증은 덴진(Denzin)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중 연구자 삼각검증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강진숙, 2016). 연구자 삼각검증법은 공동의 연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결과 및 해석을 검증받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검증뿐 아니라 미디어교육 박사학위자이면서 대학에서 미디어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명의 전문가들에게 연구결과를 의뢰하여 최대한 검증 결과를 반영하였다.

## 4. 연구결과

### 1) 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미디어 속 장애인 이미지 인식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어떠한 미디어 활동을 하였고, 미디어 속 장애인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미디어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A는 대구 사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연대나 단체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주로 기획과 시나리오 구상을 담당하고 있다. 주 업무는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담당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집회나 운동을 추진하고 참여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은평구 녹번역에 위치한 영화 배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촬영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의 주요 학생은 장애인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C와 D는 은평구 장애인 복지센터 직업교육을 통해 현재 직장인으로 활동 중이며, 해당 센터의 인권동호회 소속으로 다큐멘터리 제작과 장애인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는 대부분 장애인들을 '타자'가 아닌 보통의 대중으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상,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등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고, 교육에 사용되거나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2012년도부터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이용과 외출 시 겪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장애인 외출 탐구 생활'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차별문제를 지적하는 '차별스타'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 B와 연구 참여자 C, D는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였고, 2015년 이후 제작된 그들의 대표작에는 <동행>, <거인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대학 전공을 살려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CC 등 영상제작 기술을 겸비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획과 시나리오 구성, 촬영까지 모든 활동에 관여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편집은 지인에게 맡긴다. 또한 대학 동아리를 통해 인권활동을 시작하며 영화와 각종 미디어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지금은 센터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해요. 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Adobe Premiere Pro CC)를 사용해요. 본격적으로 영화나 영상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제가 3학년 때인 2006년과 2007년 쯤이었어요. 당시에 이는 형님을 따라 인권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

었고, 영상에 조금 흥미가 있었던 저에게는 같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외국영화 등을 부쩍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연구 참여자 A)

어렸을 때부터 TV와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얼 봐야겠다는 마음에서 시청하기 보다는 그저 보게 되었고, 지금은 내 시선을 끄는 것들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미디어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미디어 기기로 수많은 미디어 종류를 시청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주이용 미디어를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A와 B는 시나리오 구성과 이미지 창작을 위해 국내외 영화들을 시청하는 한편, 연구 참여자 B는 영화 제작과 유통 사업 차원에서 해박한 영화 지식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 업로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기 생애사적 시기에는 주류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이나 다수자 중심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지 않았다. 즉 장애인 또는 소수자로서의 각성보다 '유연한 선분'의 입장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참여자 C는 약간의 큰 울림이나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TV시청과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현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 소비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인권동호회를 통해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도 주류 미디어인 TV나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선호하지 않는다.

다른 단체들이 활동하는 영상들을 몇 번 봤어요. 그때는 나도 이런 것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사님(연구 참여자 B)을 만나고 나서 진짜 카메라(소니 6mm 카메라)를 만질 수 있었어요. 사실 어려웠는데 계속 해보니 재미도 있고 처음에는 복지사 선생님이나 박사님이 시키는 것만 촬영했는데 지금은 제가 찍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연구 참여자 C)

전 사실 TV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내용들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유튜브는 재미있어요.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퇴근할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봐요. (연구 참여자 D)

그러면, 미디어 속의 장애인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한국과 외국의 소수자 미디어 재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드라마들이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다룬 영상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뉴스 속 장애인은 주로 사건에 연루된 보호 대상으로 등장하며 최초의 시각장애인인 KBS1 이창훈 앵커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진행하는 일반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주목할 것은 비장애인의 장애인 역할이 현실 검증에 거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현실을 왜곡하고 다수자 권력의 '경직된 선분'을 재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자와 연기자들이 다수자 중심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은 장애인 시청자들을 '경직된 선분'의 권력에 포획하고 대상화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주류 미디어가 실제로는 장애인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애인 관련 미디어들은 연민과 지원에 초점을 두며 후원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TV 속 드라마나 캠페인이 출연자의 '장애'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결과 일반 시청자들이나 비장애인의 삶과 다른 '호모 사케르'의 배제된 영역으로 대상화된다(Agamben, 1995/2008)는 점이다.

장애인들은 항상 미디어 어느 편에 숨어있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장애인을 다룬 프로그램들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저 사람이 장애인 없었다면 방송국 사람들이 촬영을 했을까?" 싶기도 한 영상물들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방송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진 않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TV 속 장애인들은 너무 '장애'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는 장애인들이 학생으로 출연하는 영상들을 주로 시청했다. 대체로 영상 속 장애인은 괴롭힘의 대상이나 누군가를 때리는 가해자로 설정된다.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폭력적이었다가 후반부에는 불쌍함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대표적이다. 연구 참여자 A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대체로 비장애인들이 연기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장애인들이 누군가를 때려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이 사과해요. 제가 저번 주에 봤던 영상에서는 어떤 지체 장애인지 정신 장애인지 하는 애가 친구를 때렸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괴롭힌 거 같아요. 그래서 때린 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고 장애인 부모님이 맞은 애 부모한테 사과했어요. 끝에는 화해하는 거 같은데 주로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한국에서 장애인을 연기하는 배우 분들이 교과서처럼 보는 영화는 ‘말아톤(2005)’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2005년에 제작된 말아톤 이후에 훌륭한 장애인 영화가 없고, 말아톤마저도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를 해요. 서울에는 장애인 극단과 공연단들이 많은 데도 아직까지 한국 영화 시장은 장애인 연기를 비장애인들을 시키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장애인 감독과 기획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은 대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함께 오히려 장애인들을 캐스팅하면 편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와 B는 영화 속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 배우들이 전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의 상업성과 흥행성은 이해되지만, 비장애인들의 출연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미디어에는 예외 상태가 이미 규칙이 되어 버렸고 관례화 되어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캐스팅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차별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미디어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되고 재현된 신체로만 남게 된다. 그리고 성역화되어 일상성이 탈각된 미디어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예외적 존재로 특화되어 표현된다.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캐스팅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차별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미디어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되고 재현된 신체로만 남게 된다. 그리고 성역화되어 일상성이 탈각된 미디어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예외적 존재로 특화되어 표현된다.

각각의 비장애인 배우들이 다른 모습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듯이 장애인들도 똑같아요. 같은 병명을 갖고 있지만 똑같은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미디어 속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이며 모두 비슷비슷하게 연기해요. 이러한 연기가 오히려 편에 박힌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연기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같은 청소년들이 장애인을 모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

제가 경험해본 바로, 방송이나 영화처럼 상업적인 미디어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 영화 업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걸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영상 속 장애인들은 포장된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죠. 몸이 불편한 데도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몸으로 어떻게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은 분명 존재해요. 그걸 만드는 사람도 그럴 의도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봐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장애인이 연기하는 억양이나 행동은 단지 장애인을 병명으로서만 해석했으며, 이를 통해서만 생산되고 재현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기 불편할 정도로 편에 박힌 연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A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표현할 때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영화업계에서 활동 해본 경험을 말하며,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장애인을 '결함'과 '손실'의 요소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역을 맡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다수의 미디어가 아직까지 장애인 연기를 회화화하는데 사용한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신현준에게 진행자들이 "기봉이 인사 한 번 해 달라"고 요청한 뒤 폭소하는 영상을 송출하여 문제된 바가 있다(이해인, 2018, 7, 10). 이는 비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장치가 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신체의 표준적도와 '정상성'을 규정하는 권력 효과를 지닌다(Agamben, 1995/2008, 228쪽). 이처럼 사회 곳곳에 권위적 사고가 굳어 낮은 것과 다양성을 거부하는 '경직된 선분'의 장치들이 존재한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의 주요 기획과 촬영까지 소수자인 자신들이 직접 만든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들의 미디어 활동은 비장애인들에게 인식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야기를 담는 미디어를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생산적 욕망에서 출발하는 행동이다. 동시에 '불편한 몸'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하고 있는 예측화된 미디어 제작을 자신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컴퓨터로 작업하여 공통의 것으로 되돌리는 세속화 작업이라고 분석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들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배려'와 '보호'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거부하는 탈주의 경험을 함축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영상제작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경직된 선분'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탈주적'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

## 2) 미디어 제작 활동과 생애 전환점 경험

그러면,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 어떻게 생애 전환점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연구 참여자 C와 D는 인권동호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인권동호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미디어 제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주변사람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촬영 기계들을 만지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실천과 투쟁에 관한 사고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선배

를 따라 우연히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관한 다큐 한편을 보게 된다. 그 작품은 2002년 작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였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역을 이동하던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숨지자 각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개개인들이 철로에 놓거나 버스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비장애인인 연구 참여자 B는 계획에 의해서 소수자 미디어를 제작하게 된 것이 아닌 우연한 계기로 영상에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상 세미나를 통해 현재 은평구 인권동호회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엄마도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제가 카메라를 만질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했어요. 사실 어려워요. 맨날 시작 버튼 누르는 것도 어렵고 “컷”소리가 나면 바로 멈춰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돼요. ... 오늘은 다른 카메라였더니깐. (연구 참여자 C) ... 그래? 근데 재미있어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미디어 활동을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 시청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는 다큐멘터리 시청 이전까지는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어떤 식으로 개선의지를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경직된 선’을 따라갔다. 하지만 다음의 언급처럼 다큐멘터리의 파급력은 생애 전환의 계기를 창출하게 되었다.

당시에 전 인권 동아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를 시청하게 되었어요. 그때 머리가 확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구나, ‘이런 다큐멘터리 하나가 정말 큰 의미를 갖게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는 무료 봉사나 교육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연히 찾아온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나 인권동호회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미디어가 오인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바로잡고 싶다는 욕망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환점은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의 ‘경직된



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 욕망을 실천하는 소수자 되기의 결절점(node)<sup>3)</sup>이 된 것이다. 나아가 특정 전문가나 자본가들의 영역이라고 체념했던 미디어 영역에 제작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영상을 찍고 싶어 하는 구나를 알았죠. 그렇게 영상 교육과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무료로 강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복지사님(은평구 장애인센터)을 알게 되었죠. 근데 무려 이곳에서 5년이나 함께하게 됐어요. 전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는데, 제 자신이 이 일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는 영상 제작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진술들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제작 및 이용 활동을 통해 과거의 삶을 '탈영토화'하는 전환점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딱딱하게 영겨있던 실이 풀리듯 자신의 자발적인 욕망 생성을 경험하게 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어느 날 인권동호회에서 영상 제작모임을 할 건데 하겠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전 단번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밖에 자주 나가서 무언가를 했던 거 같아요. 찍을 걸 찾아 나섰죠. 이것 저것 다 찍고 싶어요. 이젠 만들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는 동호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촬영하는 법을 배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인권동호회에 초대해 촬영 기술을 알려줄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연구 참여자 C도 촬영 장비를 가지고도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영상 제작과 작품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게 된 것을 만족스러워 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본인이 화면에 나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스크린에 자신이 촬영한 신이 등장하면, 또 다른 영상을 찍어 다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드러났다. 비장애인들의 영역이라고 체념했던 스크린을 유희의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변화시켰다. 연구 참여자 B는 전반적인 촬영 교육을 통해 최대한 인권동호

---

3) 매듭이라는 말로, 헤겔은 자신의 〈논리학〉의 '질량편'에서 결절선(Knotenlinie)이라고 사용하여,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전환하는 그 구획을 일컬어 사용하였다.

회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진술했다. 그에 의하면, 비장애인인 자신이 담고자하는 카메라의 시선과 이야기가 자칫 장애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하는 것들을 짜 맞추고 편집하는 일은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기에 본인이 하지만 장애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전 무언가를 빨리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래 대학(직업 학교)을 다니다가 인권동호회에 있는 이는 친구가 “한번 이런 거 해볼래?”라고 하길래 그때 할 게 없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촬영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구도도 잡고 막 저도 TV에 나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어요. (연구 참여자 D)

인권동호회 소속 장애인분들이 찍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려고 하죠. 편집이야 제가 하지만 항상 어떤 주제를 잡을 때도 동호회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 하면서 도출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작품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연구 참여자 B)

다른 사람들(비장애인)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인권개선활동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장애인과 같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관심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전 사실 카메라에 비추기도 싫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요컨대, 연구 참여자 A와 B는 대학교 인권 동아리 활동이나 영상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던 중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실천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C는 좀 더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환점과 삶의 변화를 가져 왔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A, C, D는 자신이 사회가 규정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나’라는 주체성을 고수하며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넘어 실천 행위를 즐기면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희의 놀이문화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류 미디어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자로 재현되어 왔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탈주적 욕망으로 미디어와의 만남, 즉 미디어 제작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공명하며 기쁨의 정서를 갖게 되는 정동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 3)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한 ‘소수자-되기’실천

그러면,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 전환점 이후 미디어 제작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되기’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소수자-되기’ 실천의 함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미디어 수용을 통한 ‘읽기’와 직접 제작활동에 참여하는 ‘쓰기’ 행위에서 나타났다.

우선, ‘읽기’ 실천의 측면에서 지적된 비는 지상과 뉴스가 장애인들의 법적 권리 주장과 실천들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 A에 의하면, 언론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장애인과 소수자를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아무리 큰 연대운동을 해도 중요한 뉴스 소재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뉴스 시스템과 내부 사정을 이해 못하고 일방적인 비판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이동권 투쟁’도 사건 초반에만 기사화하고 그 이후 영상매체에서는 집회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과 ‘장애등급제폐지’를 위한 쟁기대회 등을 뉴스 기사로 송출하지 않은 사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반증한다.

철강노조나 여타 다른 노조들의 집회는 뉴스에 나오는데 장애인들의 집회는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1800일 이상 천막 쳐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연구 참여자 A)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소외받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쉽게 해고당하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행인들에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인권운동을 담은 ‘거인들’을 제작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연구 참여자 B)

차별금지법에 관한 인권운동을 했을 때 많이 무서웠어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를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알리는 인권운동을 진행했어요. 촬영도 했고 그걸로 상도 받았어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혜택들이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폐지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 연대들이 생존권을 반납하며 치열하게 투쟁한 장면들이 신문기사 외에 지

상과 뉴스로 송출되지 못한 점을 문제제기 했다.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개선점을 위한 소수자의 투쟁들이 지상과 뉴스에서 소외되고 그들을 배제하는 관계로서 예외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 B가 진술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내용도 유사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법안의 폐지나 존재 이유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가 존재해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인식이 연구 참여자 B와 D가 영상제작을 기획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은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디어 제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쓰기(제작)’의 실천까지 발전하였다.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전환점을 경험하며 미디어 제작활동을 통해 소수자 되기 실천을 행하게 된다. 비장애인의 주류 미디어에 대한 실망감은 연구 참여자 A에게 오히려 직접 영상을 만들고 제작해야 한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연구 참여자 B 역시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최대한 영상으로 담아 작품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B는 영상을 만들 때 ‘장애’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집중시키기보다 그저 또 다른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담고자 노력한다. 장애라는 용어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화 시켜 편견과 배제가 존재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잊게 만들고 ‘사람이 사는 스토리’를 담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장애등급제는 항상 장애인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어요. 하지만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등급제가 혜택을 위한 복지 제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상한 제도예요. 가축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매길 순 없잖아요. 그리고 등급을 나눌 때도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그 기준도 비장애인들의 관점에서 나누어져요.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했지만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 학생들부터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A)

장애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우리 사는 삶, 그 모습정도. 뉴스나 TV프로에 나오는 장애인은 항상 불쌍한 요소만 강조 되니까. 평범한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해야겠죠. 비장애인들도 불쌍한 사람이 많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장애인은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전 최대한 영상 속 본연의 사람에게 초점

을 맞추고자 해요.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A는 인권교사로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만났다. 그 속에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교육들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경직된 선분'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차별과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이 교육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보다 더욱 실효성이 높으며 삶의 경험 속에서 농축된 편견에 대한 대처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이들을 만나며 새로운 욕망생산을 추동하는 촉매역할을 하며 들뢰즈와 과타리가 제시한 '소수자 되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주요 권력 장치의 경직된 선분을 벗어나 새롭게 교육의 영토를 재구축하는 '탈주선'의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가 나타내는 장애인이 일상의 영역에서 분리된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한 존재로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에서 차이로 편견에서 역설의 상황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세속화' 실천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교실이나 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 그저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죠. 그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저 자신이라기 보단 전 그저 '장애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죠.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교육해요. 아이들에게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OX퀴즈를 하며 흥미를 높이죠. 전 동일한 학교에 나갈 때도 이전과는 항상 다른 교육을 준비해요. 수업을 할 때마다 미흡한 점도 있고 보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더 집중시킬까 연구하죠. 그렇게 강의를 끝마치면 아이들 앞에 선 저는 '선생님'이 돼요. 아이들은 저를 더 이상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제 자신 그대로를 마주하게 되죠. (연구 참여자 A)

덧붙여 연구 참여자들 모두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연구 참여자 B는 장애인을 단지 '장애인'으로 묶어 바라보고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다양한 개성과 성격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자인 장애인들은 맹목적으로 동일성을 요구하고 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언어의 감옥으로 밀어 넣는다. 미셸 푸코는 강력한 권력 담론은 항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장치 속으로 소수자를 밀어 넣는다고 경고한다(Foucault, 2004/2011). 그리고 아감벤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권력 장치인 언어(Agamben, 2006/2010)를 사용해, 배제에 저항하는 소수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주류 권력의 기준에 부합한 법적 장치로 '낙인'찍으면서

그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만드는 상황을 경고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탈주하고 억압 기제들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인권 교사로 활동하면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C와 D가 속한 인권동호회 회원들과 제작 감독인 연구 참여자 B 또한 꼭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장애인 영상’이라기 보다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거대한 편견에 저항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한꺼번에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럴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을 누구나 겪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평범한 시민으로 인식되었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는 과거에는 갖지 못한 욕망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아닌 평범한 사람 이야기로 보여 지는 영상들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은 억압하고 통제를 강요하는 보호주의(Deleuze & Guattari, 1972/2014)에 대한 실천적 저항의식 속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반 관객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재생산하는 ‘소수자-되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과 같은 소수자들에게 기회와 용기를 주고 싶어 했다. 단순히 영상을 찍는다는 ‘기계적 반복’에서 벗어나 ‘차이를 생성’하는 탈영토화를 실천하기 위해 또 다른 소수자들에게 욕망을 전달해주며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나 연구 참여자 D는 9월에 장애인특채를 통해 같이 고용된 직장 동료들 인권모임에 초대해 함께 영상을 배우고 카메라 구도를 지도하는 등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 A는 하루에 단 한 명의 비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진술했다. 그리고 소수자인 자신보다 오히려 더 배제 받는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인권동호회 분들과 같이 작업한 영상들을 영화제에 출품하게 되었을 때...한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이라 오히려 재밌게 봤다.”(연구 참여자 B)

이런 걸(영상 촬영) 저랑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연구자) ...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저처럼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도 있다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A는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비장애인들보다 심도 깊고 실용적인 미디어 개선 방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해도 미디어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단 한명의 장애인 임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물리적인 시설과 관리 감독에 치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일일 모니터링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는 광고와 미디어, 예술 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가 사업기관이 법에 온전히 명시된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잘못된 용어 사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명시화된 법이 있음에도 사회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배제당하는 '호모 사케르'의 상황은 이처럼 미디어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물리적인 몸은 힘들지만 미디어를 이해하거나 뉴스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지적장애인 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이해하는 속도가 약 1.5배 정도 느려요...그래서 용어를 순화하고 좀 더 사건의 이미지에 중점을 둔 뉴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아 분들은 한국영화를 못 봐요. 자막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죄다 외국영화만 보죠. 수어를 제공해주는 미디어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

이러한 지적을 통해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이 먼저 영상을 만들어 그들을 돕고자 기획하고 있고, 수많은 영상자료들을 연구 중이라고 진술했다. 즉 미디어가 강요하는 동질성에 대항한 '탈주의 욕망'을 생성하는 것이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미디어 개선점은 비장애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소수자 정책의 견해들과 상당부분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인권교사로 근무하며 심도 깊은 변혁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고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연구 참여자 A의 의견처럼 '소수자-되기'의 실천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생성'을 위한 발견이고 탈영토화된 사고라고 해석된다. 연구 참여자 B는 생애적 경험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다루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과물을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관련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D는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미디어 활동에 소외받고 능력을 의심받았던 과거에 저항하여 자신이 주체가 된 미디어 능력을 발전시켰다. 동시에 비장애인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활동 영상을 직접 미디어 속에 담아내고, 영상 제작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생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사적인 차별적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성역화된 장애인’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권을 지닌 일상영역 속의 ‘세속화된 인간’으로 시선을 전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미디어 활동은 주류 미디어와의 반대 전선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주체적인 미디어 영역을 구축하고, 나아가 소수자 입장에서 다수자의 권력 장치들을 탈영토화 하는 역동적인 사회 변화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즉 사회가 규정한 장애인이라는 ‘경직된 선’과 제도적 지위에 한정되지 않고 ‘탈주선’을 타며 특이성을 지닌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소수자 되기’의 실천인 것이다.

## 5. 나가며

본 연구는 장애인 영상 제작자의 미디어 제작활동과 생애전환점 분석을 통해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수자-되기 실천의 함의들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미디어 비오그래피 방법을 적용하여 장애인 제작자와 인권동호회 활동가들의 미디어 제작 체험과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수자-되기’ 실천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어떠한 미디어 활동을 하였고, 미디어 속 장애인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수의 해외 미디어와 유명 영화제의 출품 영화들은 장애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장애인 주연의 작품들도 다수 제작되었다. 반면, 한국의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주연의 영상물이나 뉴스가 드물게 제작되었다. 특히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를 할 때 모두가 유사한 장애인 재현을 통해 부정적이고 ‘낙인 찍힌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왜곡된 장애인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이러한 주류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은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차별과 배제의 ‘경직된 선’에 예속된 데서 기인한다. 비장애인 아이들뿐 아니라 장애인들까지 모방하기 쉬운 미디어 속 장애인 재현의 연출 기법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소수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동질화, 타자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이 미디어 제작 활동을 통해 어떻게 생애 전환점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 A는 대학교 인권 동아리 체험을 통해 거대한 인식 변화를 경험하고 차별에 대한 투쟁용기를 얻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우연한 기회로 본인의 사업인 영화 배급과는 별개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인권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비장애인인 연구 참여자 B는 생애적 과정 속에서 축적된 예외적 상황과 호모 사케르가 되어가는 상황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상 전문가 입장에서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이 주체적 생명이라기 보다 '장애'라는 측면만 부각된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점과 뉴스와 같은 미디어에서 배제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호모 사케르'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달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 장애인들의 시선에 대항하는 세속화 실천이 그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A, C, D는 자신들이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에 저항하고 실천 행위의 원동력으로 미디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성역화되었던 장애인들이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며 지역 공동체에 파고든 생애전환점의 경험들은 '세속화' 실천의 함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생애 전환점 이후 미디어 제작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되기'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파해야할 지상파 뉴스들이 장애인들의 쉼터대회 등에 무관심했고 장애인들은 미디어 장치를 통해 일상에서 배제된 '벌거벗은 인간'으로 낙인찍히고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능동적인 미디어 읽기와 쓰기를 통해 소수자 되기 실천을 행하게 되었다. 인권 교육 교사 활동과 교육환경의 개선, 인권동호회의 공동 작업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장애인 다큐멘터리 제작, 인권동호회의 촬영활동을 통한 실천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위해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미디어 환경에 안주하기보다 직접적인 미디어 읽기를 통한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제작 활동을 통해 새롭게 주류 권력에 포획당한 장치들을 세속화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영상 제작자들의 생애 전환점 전후의 변화 상황과 소수자-되기 실천들을 탐구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미디어 읽기 및 제작 활동을 통해 장애인 미디어 인식에 대한 투쟁과 개선 행위를 조명하였고, 예속화된 미디어를 공통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세속화 실천'의 함의들을 발견했다. 그 대항의 적대에는 장애라는 인식이 비장애인들이 정의한 법제도적 '장치(장애인등급제)'에 예속된 점과 하나의 경직된 선분으로 고착되어 재생산되는 미디어 속 재현(불쌍하거나 폭력적인 장애인)의 문제점들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해 보완점을 지닌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고, 후속 연구에서는 SNS와 1인 미디어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서 풍부한 경험과 인식들을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 비오그래피 방법의 특성상 더 많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오랜 기간의 연구 기간과 리포 형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소논문의 형식에 맞춰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유의미하고 대안점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주현·임영호 (2012).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한국소통학보>, 15권 2호, 5-40.
- 강진숙 (2014).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시론: “미디어정동(精動, affectus) 능력”의 개념화를 위한 문제제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195-221.
- 강진숙 (2015). 정동의 장치와 주제화 연구방법 - 미디어 비오그래피.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4-37.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강진숙·박지혜 (2015). 청소년의 욕망 생성과 소수자 되기를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 연구 -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S.Y.Media’ 참여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7호, 117-148.
- 김미정 (2001).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비아 (2007). <들뢰즈·가타리의 ‘되기’의 정치학이 지닌 교육적 함의>.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지 (2018, 3, 14). 장애인 낙인찍은 ‘장애등급제’...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에너지경제>. URL: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9032>
- 김용탁·김정연·고인철 (2016).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현장연구 2016-02).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김윤상 (2013).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 연구 I. <카프카연구>, 통권 30호, 283-301.
- 김정선 (2004).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영화와 미국영화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7). <장애인들의 다중 형성과 소수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자론과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지성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 (2010). 미디어속의 장애인의 모습. <초암네트웍스>, 24권 3호, 108-113.
- 김효경·박소영 (2018.03.12). 신의현 첫 메달 장면, 방송사 한 곳도 중계 안 했다. <중앙일보>, 10면.
- 김홍주 (2004).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창환 (2009). <개인, 사회적 관계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장애인 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고춘완 (2005). 장애인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2000년 이후 몇 가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26호, 231-256.
- 박흥근 (2017). 영화에서 재현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와 성차 :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4집, 423~451.
- 양정혜·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371-415.
- 오창호 (2014). 소설 미디어와 유목적 삶 - 들뢰즈·가타리 욕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소설 미디어 문화현상. 〈한국지역언론학보〉, 14권 4호, 189-231.
- 윤지선 (2016). 장기-몸(intestins-corps)의 붕괴로서의 출산 -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관없는 신체' 이후. 〈철학연구〉, 115호, 165-196.
- 이경화 (2013). Deleuze와 Guattari의 '여성-되기'의 관점에서 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아여성연구〉, 52권 1호, 67-86.
- 이익섭·신은경 (2005). 장애 정체성 개념화 연구: 포커스 그룹 면접과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건강〉, 10권 4호, 509-530.
- 이진경 (2006). 〈철학의 외부〉. 서울: 그린비.
- 이혜인 (2018, 7, 10). '기봉이' 흉내 개그, 시청자들이 화났다. 〈조선일보〉, 25면.
- 정근식 (2013).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통권 100호, 183-208.
- 최애경·박승희 (2004).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풍물 연계프로그램이 비장애 고등학생의 장애 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0권 1호, 279-314.
- 최진주 (2018, 3, 9). 휠체어로 지하철 환승, 40분이나 걸렸다. 〈한국일보〉, 13면.
- Agamben, G. (1995). *Homo Sacer. II potere sovrano e la nuda vida*.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Agamben, G. (2005). *Profanazioni*. 김상운 (역) (2010).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서울: 난장.
- Agamben, G. (2006). *Che cos'è un dispositivo?, L'amico, Che cos'è il contemporaneo?* 양창렬 (역) (2010).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 Barnes, C. (1992). Media Guidelines. In: Pointon, A. and Davies, C. (eds.) (1997). *Framed: Interrogating Disability in the Media*. London: British Film industry. pp.228-233.
- Deleuze, G. & Guattari, F. (1972). *L'Anti-O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 (역) (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Editions de Minuit*.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Denzin, N. K. (1978). *Research Act*, 2nd ed. New York: McGraw-Hill.
- Ellis, K. (2015.07.08). The Voice, and the body: contesting with disability on reality TV [On-Line]. *Online Journal of THE CONVERSATION*. Retrieved from <https://theconversation.com/the-voice-and-the-body-contesting-with-disability-on-reality-tv-44413>
- Foucault, M. (2003). *Le pouvoir psychiatr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3-1974*. Paris: Gallimard. 오트르망(심세광, 전해리) (공역) (2014).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서울: 난장.
- Foucault, M.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NY: Palgrave Macmillan. 심세광 · 전해리 · 조성은 (공역) (201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서울: 난장.
- Gray, C. (2009). Narratives of Disability and the Movement for Deficiency to Difference. *Cultural Sociology*, col.3, 317-332.
- Kellner, C. E., Hallahan, D. P.(1990). The cover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Newspap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 272-282.
- Metcalf, F. (2002). Tears of Courage, *the Courier Mail*, 4-5.
- Nelson, J. (1994). *The Disabled, the Media, and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René Descartes (1637). *Discours de la Méthode*. 권오석 (역) (1993). <방법서설>. 서울: 홍신문화사.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the Macmillan Press.
- Shakespeare, T. (1999). Art and lies?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on film. In: Corker, M. and French, S. (eds.) *Disability Discours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64-172
- Safran, S. P. (1998). "The first century of disability portrayal in film: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Spinoza, Benedict de (1675). *Ethica*. 강영계 (역) (1990). <에티카>. 서울: 서광사.
- United Nations (200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Retrieved from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optprot-e.pdf>

Vollbrecht, R. (1993). Lebensläufe und sozialer Wandel. Das Krisenkonzept der Erfahrung als Grundlage medienbiographischer Reflexion. In Thier, M. & Lauffer, J. (Hrsg.). *Medienbiographien im vereinten Deutschland. Dokumentation der Postsdamer Tagung vom Febr* (PP. 10-27). Bielefeld.

최초 투고일 2018년 10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월 25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월 30일

Abstract

# Media Biography of 'Becoming minority' of video producers and activists related to the handicapped

Focusing on reproduc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disabled of media

**Jinsuk Ka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Dongmyeong Kim**

Research Assistant,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roblems of representing the disabled in the media, suggest the improvement and to derive implications of 'Becoming minority' practice through analyzing the media production activities by the disabled and the turning point in life of the disabled producers. For tha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minority theory of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the late post-structuralist thinkers of France, and explore thought of 'Homo Sacer' suggested by Italian political philosopher Giorgio Agamben. Based on this, we will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disabled people who produce video and people who belong to human rights groups for video production. This study apply the media biographical research which i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analyzing result of intervie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to improve the media environment of the disabled in Korean society by analyzing the reproduction of the disabled in the media and subjective media production activities by the disabled.

**Keywords:** Disabled, Video Production, Minority, Media Biography